

오전(1부, 노량진) 6시  
 주일예배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예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7월 23일 (제121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 더 좋은 것으로!

철산리에서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인천 송의동. 여기까지가 우리 교회 역사의 1막이다.

2막의 시대는 서울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시작되었다. 학생체육관과 올림픽공원,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어 시간 안에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것이 여의치 않아 1995년, 지금의 KBS88체육관으로 이전하여 28년! 이제 우리는 3막의 시대에 진입하려고 한다. 체육관 시대를 마감하고 온전히 정착할 우리의 성전을 찾는 중이다.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함은 40년 세월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다(마7:11). 나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웃은 아빠가 사줄게.”라고 말해왔다. 이는 ‘믿음 안에서 자라낸 성도들이 잘 자라주고, 성장하여 자기 뒀단 잘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의미다. 그 마음은 여전하다.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주머니를 노리지 않는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 하나님은 4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7월 12일, 서울성전 이전을 위한 40일 작정기도를 선포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기도가 막힘이 없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다투지 말고, 서로 하나 되라는 뜻을 성도들에게 전했다. 1992년 메인스타디움집회를 앞두고도 하나님은 원망들을 일이 있다면, 얽힌 심정이 있다면 먼저 풀라고 말씀하셨었다. 예물도 화해한 후에 드리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 전, 우리가 먼저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다.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줄 부모가 있을까. 하나님은 작심하고 작정한 자에게는 늘 쳐 주셨다. 아곱에게 쳐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작심한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작심하고 물러서지 않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작정하고 40일 기도하는 우리 예수중심교인들의 소원도 들어주신다. 파지 않고 심지 않고 채우지 않고 건축하지 아니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주실 것이다.

# 서울 성전 이전 40일 작정기도 선포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은 없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11) 작정(作定), 작심(作心)했다. 40일 작정기도! 우리에게 88체육관보다 더 좋은 것 주신다.” 40일 작정기도 선포와 함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KBS88체육관 측의 이야기는 간단히 말

KBS88체육관으로 이전하여 세계로 선교의 지경을 넓혀왔다. 그리고 이제 88체육관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길로, 3막으로 들어선다는 말씀이다. 솔직히 목사님으로서야 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길을 나서야 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속이 타시겠지만, 아마도 성도들은 셋집살이를 마감하고 내 집 마련이라는 기대가 더 많을 것이다. 그동안 목사님과 함께 지내온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신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도 많았지만, 우리 기도에 놀랍도록,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역사의 장이었다. 우리는 경험이 있기에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한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고꾸라진 사건을 거울삼아 오직 감사로, 에베셀 하나님을, 감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다. 이것이 목사님께 배운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경험한 하나님 아닌가.

JESUS VICTORY OVERCOME

서울성전 이전 40일 작정기도 선포 7월 12일 ~ 8월 20일

해서 이렇다.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이 발표되었고, 따라서 자구책 차원에서 행사를 많이 유치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2체육관은 테니스경기장으로 개조하여 역시 수익구조화 하겠다는 것이고, 행사가 들어오면 당연히 1체육관을 사용하게 되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와 기회가 소멸되는 것이다. 이러한 통보를 받고 목사님은 작정, 작심하셨다. ‘서울 성전 이전 40일 작정기도’를 선포하시며 “내 인생의 3막이 열렸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교회는 1989년, 인천에서 서울로 진출하여 학생체육관 및 올림픽공원을 무대로 전국을 성령으로 불태웠다. 1995년, 현재까지 예배처소로 쓰고 있는

그래서 다시 목사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목사님 말씀처럼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1991년 12월 25일로 계획한 메인스타디움집회를 막으셨던 하나님께서는 6개월의 작정기도를 받으시고, 당시 교계가 놀라는, 단일교회 사상 최다 인원이 몰려든 메인스타디움집회를 이루어주셨다. 쏟아지던 비를 멈추시고 성황리에 진행된 그날의 역사와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인천교회 건축의 과정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2014년 추석 명절날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되었던 평화통일 기도성회, 2016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되었던 7차 평화통일 기도성회, 그 모든 역사가들이 지난한 준비과정에 고통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서울 성전 이전의 대역사는 바로 그러한 기회가 되리라 확신한다. 목사님이 선포하셨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데 이미 전쟁은 끝난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선결해야 할 것은 목사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다투지 말아야 한다.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 성결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직 서울 성전 이전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 모두가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하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도하자.

한은택 목사

2023 전국 청소년 수련회

중고등부: 7월 24일(월)~26일(수)  
 대학청년부: 7월 27일(목)~29일(토)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욘34:10~15)



#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말라, 마귀가 틈탄다

지난주, 행정목사로부터 88체육관을 8월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정목사에게 '걱정하지 마라. 새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멋진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제가 목회를 한 지 햇수로 딱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우리는 올림픽공원의 여러 체육관을 돌며, 그리고 88체육관에서 1체육관, 2체육관을 돌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40년 떠돈 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셨듯, 우리도 40년을 맞아 새 땅으로 들이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멋진 각본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각본을 쓰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성전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진 않지만, 한 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합니다.

###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저는 행정목사의 보고를 받고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나요?" 묻는 저에게 하나님은 '40일 작정 기도를 선포하라!'는 생각과 함께 '서로 다투지 말고, 분내지 말고, 서로 하나가 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40일 작정 기도를 하라고 하심은,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하셨지만, 우리의 간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열도를 체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걱정이나 근심이 아닙니다. 합심으로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 작정(作定)이 됩니까?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장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내 환경에 배수진을 치고 마침내 이루고야 말겠다고 작심(作心)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는 다니엘이 21일 작정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전쟁에 관한 한 이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하고자 세 이레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작정 기도를 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니엘이

작정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단10:12). 그 하나님은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를 선포한 날, 이미 우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이겨놓고 하는 것이고, 기도는 응답받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요, 첫날에 이미 기도를 들으셨지만, 응답은 21일째, 기도가 끝나는 날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보리라"(욘34:15).



총회장 이초석 목사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14절). 첫날 이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는데 왜 20일이라는 공백이 생겼을까요? 이는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사 국군이 이십 일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단10:13~14). 악한 영들이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를 막았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마귀도 동시에 일을 시작하니까요. 지금도 마귀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40일 작정 기도에 마귀는 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곳으로 들어가 더욱 열심히 예배하고, 더욱 전도하고, 더욱 선교할 것을 알고 있으니 필사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분열되게, 분노하게 하여 일을 망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꾀계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도 그 래야 하지만, 특별히 40일 작정 기도 동안

에는 더욱 분을 내서는 안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엡4:26~27). 분이 차면 기도가 안 됩니다. 경험 있으시죠? 부부가 싸우고 난 뒤에 기도하려고 앉으면 기도가 딱 목젢에 막혀 안 나오는 것들요(벧전3:7). 그거 풀고 가야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바 마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약

이번 장마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산사태로 사람들이 죽고, 논이며 밭이며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궈놓은 재산이 한순간 다 사라졌습니다. 분노라 하는 것이 마치 수마(水魔)가 활취고 간 것과 같습니다. 순간 다 잃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잠17:14). 모세가 혈기를 내다가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갔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소원, 그토록 원하는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툼을 멈추고, 혈기를 제어하여야 합니다. 그 정도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각성하시라고 욥기서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욥34:15). 여호수아 3장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때는 물이 불어난 시기라 이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수3:5). 기사는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너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끗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와 케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였습니다.

###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지 말자

하나님은 분명히 기사를 행하사 아름답고 좋은 성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는 40일 작정 기도에 모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33:3). 다음은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똬지 걸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오래 참고, 분내지 말고, 세속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리고 장차에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육체의 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5:19~21). 할렐루야!

1:19~21). 분을 내는 것은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것과 같고, 아구까지 물이 찬 항아리를 들고 가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 다 쏟는 것과 같습니다(갈5:17). 그러니 분을 내지 마시다. 다투지 마시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것이요(갈5:22), 사도의 표도 오래 참음에 있다고 하였고(고후12:12),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시37:11). 여러분, 새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교회가 황폐해지고, 바로 서지 못할 뿐 아니라(마12:25) 공멸하고 맙니다(갈5:15). 계를 한 마리 바구니에 넣어두면 바구니를 잘 넘어 도망가는데, 두 마리 이상만 두면 절대 도망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한 마리가 바구니를 타고 올라가면 다른 계가 그 다리를 잡고 늘어져서 절대 도망을 못 친답니다. 둘이 서로 도와주면 도망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게척럼 물고 뜯어서야 되겠습니까?

:: 객원칼럼 ::

# 지구와 미래세대

최근 영국의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에 소개된 지구 자전축 변화에 대한 서울대 연구팀의 논문이 화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1900년부터 2010년까지 북극점 이동을 조사한 결과, 2000년까지 북극점은 조금씩 원편으로 이동해왔는데, 2000년 이후 갑자기 북극점의 이동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 의문에 대해 많은 가설들이 있었는데, 그중 지하수와 해수면 상승의 상관관계에 의심을 갖고 추적해온 서울대 연구팀이 북극점 이동, 곧 지구 자전축의 변화에 인류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7년간 인류가 퍼올린 지하수의 양이 무려 2,150기가톤(2조 1,500톤)이라고 한다. 이는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약 8억 6천만 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라 하니 가능하기조차 어렵다. 그런 막대한 지하수 개발이 해수면 상승과 지구 자전축의 변칙적 이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이다.

오늘날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기후 및 생태 위기가 국제적 관심사이고, 지구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집중하고 있는데, 결국 인간의 무차별적 자연 파괴가 도를 넘어 이제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우리 행성 지구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지구환경 복원에 국가 차원을 넘어 온 인류가 나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며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스린다'는 말이라 생각한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엄정한 규칙과 질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개발은 정복자의 욕망만이 표출된 것일 뿐 거기에 관리, 조절의 지혜는 자리 잡지 못한다. 여러 집단의 이기심이나 욕망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지혜가 다스리는 자에게 없으면, 곧 정치가 이런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면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고 갈등하며 분쟁하는 난장판이 되고 마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작으로 전 세계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이 제대로 검증된 통제 없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온다면, 정말 계시록이 경고하는 대로 바다의 삼분의 일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 인류의 미래에 닥칠 수 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바다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어지더라”(계8:8~9).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우리를 무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온 인류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Henry Han

:: 성경에세이 ::

# shalom(shalom)!

여보게!  
작은 마을에 목사님이 계셨네. 그분은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늘 'shalom'하며 인사를 하셨지. shalom(shalom)은 '평화, 평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네.

그날도 목사님이 마을을 지나가는데 맞은 편에서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네. 목사님은 어느 때처럼 'shalom'하고 인사를 건넸지.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남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거야. 한참 목사님을 바라보더니 목사님에게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했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shalom이라고 했습니다.”  
“shalom이라고요? 제가 shalom이라고요?”  
목사님은 남자의 말이 의아해서 왜 그러는지 물었네. 남자는 “저는 병원에서 말기 암 판정을 받아 곧 죽을 놈인데, shalom이라고 하시니 너무 놀라서 그렇습니다.” 상황 파악을 한 목사님은 “나는 목사요. 당신은 분명히 shalom(shalom)입니다.”

그 말에 남자의 표정이 환해졌다네. 그리고 주일에 목사님의 교회에 가겠노라 약속했지. 남자는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했고, '나는 shalom이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지 된

가. 남자가 정기검진차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놀라며 “종양이 없어졌습니다.” 하는 것 아닌가. 남자는 정말 살 놈이 되었네.

여보게!  
몇 주 전, 주일에 한 청년이 어머니와 함께 방송실로 나를 찾아왔네. 심장이 안 좋았는데, 안수를 받고 다 나왔다고 감사예물을 드리러 온 거야. 그의 어머니가 “목사님, 애 이름 좀 바꿔 주세요.”라고 해서 “shalom(shalom)”이라고 해. 하나님의 평안이 늘 너에게 있을 거야.”라고 말해줬네. “shalom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shalom!  
봉우

:: 오늘의 메시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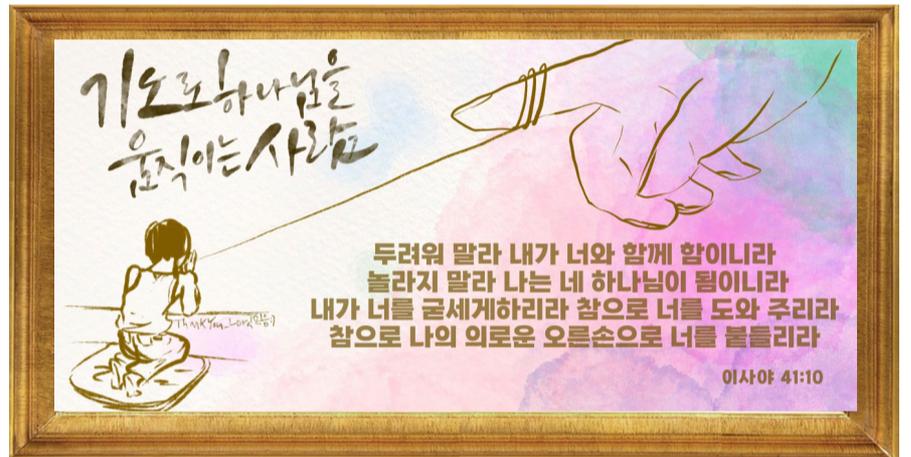
# 기도는 자녀의 특권이다

목사 안수 후 처음 목회지로 나갔을 때의 일이다. 당시 교회에는 2천만 원의 부채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주신다는 말을 듣고 내려갔다. 그러나 부채 상황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목사님은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 기다리던 목사님의 전화를 반가이 받았는데, “목회 잘하고 있냐?” 물으신 후 긴 시간 목회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으나 내게는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2천만 원을 언제 주실 건지만 생각했다. 답답한 중에, “그런데 목사님! 2천만 원은 언제 주십니까?” 여쭙었더니 “응, 내가 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하시고는 전화를 탁 끊으신다. 당시 잠깐은 실의에 빠졌었으나 정신을 차리고 간절히 기도했고, 응답을 받아 부채 상황과 더불어 풍성히 주신 물질로 더 넓은 곳으로 성전 이전

까지 하여 목사님을 모시고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 사건은 내 목회 최대의 교훈이 되어 기도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 재정이 없을 때 기도했더니 물권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축사했더니 치료해주셨고, 산재한 문제들로 근심, 염려할 때 기도했더니 형통케 하였고, 잃어버린 것을 위해 기도했더니 되찾게 하셨다. 일본 사역 때는 김치, 된장 냄새가 난다고 성전을 비우라는 주인의 말에 성도들과 작정해서 기도했더니 성도들의 헌신으로 재정을 채워주셔서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여, 마침 일본 집회에 오신 목사님을 모시고 이전 감사예배를 성황리에 드리게 되었다.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다.

김상욱 목사



:: 소망의 언덕 ::

# 만천삼백

여름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수련회에 데려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할까~'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런 고민을 깊이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중고등부에서 최근에 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만!천!삼백! 운동'입니다. 10,000명에게 예수를 전하고, 1,000명을 교회로 인도하고, 300명을 교회에 정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종들의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알기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의를 갖추고 양해를 구한 뒤 교문 앞에서 전도를 해도 잡상인 취급하 기도 하고, 전도용 물티슈를 나눠주면 학생들과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무심하게 훑 내던지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에 조롱하고 웃으며 대답하는 학생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자체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명백한 증거니 더욱 감사할 뿐

입니다. 전도가 매번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어느 중학교에서 전도를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저희 일행을 보시고는 전도하는 것이냐며 본인도 함께 하겠다고 전단지 와 물티슈를 들고는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는 학생을 향해서는 “왜 안 받고 가니? 이거 하나 받으렴.”하고 이야기해 주시니 아이들이 웃으며 받아갑니다. 이럴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주시는 것만 같아 더욱 힘이 납니다. 이렇게 중고등부 일행들과 함께 성경에서 배운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조차 무척이나 민망하지만 날마다 어린 영혼들까지 함께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예수중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 다시 한번 부흥한국을 주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현승 목사

# 지금도 일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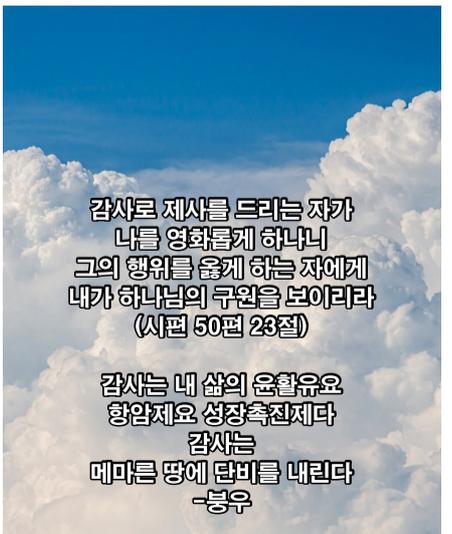
제 아들인 햇빛이가 중3 때의 일입니다. 지인분이 럭셔리 펜션에서 여름방학 동안 알바를 해보지 않겠냐며, 한 달 일하면 백만 원을 준다고 해서 햇빛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말이 화장실 청소를 담당했는데, 얼룩 하나, 물기 하나 없이 해야 하니 청소를 다 하고 뒷걸음질로 나오면서 걸레로 닦고 검사를 받고서야 퇴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맘에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우리 아들이 생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맘에 '태어나서 처음 일하고 받는 첫 월급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자. 엄마는 늦게 예수를 믿어서 못 해봤는데 얼마나 감동하시겠니?' 했더니, 흔쾌히 좋다며 월급을 받은 즉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인분이 조금만 일을 더 해 달라고 해서 2주 동안을 더 하고, 2주 알바비를 받아 십일조를 드리고 나머지 본인 용돈을 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아들이 대학 입학할 앞두고 있을 때, 제부가 햇빛이 첫 등록금은 내가 내주고 싶다며 5만 원 권으로 2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서 아들은 대학 입학할 때 전혀 돈 안 들이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하나님께 드린 아들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들에게 수백 배로 갚아주신 것 같습니다. 햇빛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 추석을 맞이한 주일이었는데, 그날 예배는 목사님께서 해외집회를 다녀오시고 집회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의 심령이 뜨거워져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목사님께서 마지막 축도하실 때 항상 그러듯이 아이 머리에 한 손을 얹고 제 머리에 한 손을 얹고 축도를 받았습니다.

예배 후 커튼을 걷고 있는데 아들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엄마, 축도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햇빛아, 제천에 꼭 교회를 세워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순간 저는 혹시나 잘못 들은 건 아닌지 해서 묻고 또 물으니 화까지 납니다. "진짜라고~." 그 당시 제천에는 예수중심교회가 건축되어 있었지만 갑작스런 일로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한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었고, 이후에 제천에 교회가 생겼지만 생활의 여유가 없어서 마음만 갖고 있다가 2017년, 작게 장사를 시작하는 첫 달에 제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회 임대료가 얼마인지 여쭙어보고 1년 동안 임대료를 보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후 정해진 날짜에 보내드렸습니다. 그 후 부모님 두 분이 소천하시고, 코로나가 오면서 장사도 접게 되었는데 정리하고 보니 대출금만 남아 있는 상황 속에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낙망과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들에게 "도대체 20년 동안 엄마는 무엇을 하고 살았 다니? 주의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번 것도 아니고..." 하니 아들이 "엄마는 20년 동안 나를 기르고 키워주셨잖아."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큰 힘을 얻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장사하면서 생긴 대출금이 남아 있다 보니 머뭇거리게 되고, 모든 것이 정리되면 언젠가는 주의 일을 해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훗날에 나이만 먹고 '그때 이렇게 주의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할 걸' 하지 않을까, 후회할 일만 생기는 것 아닌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데, 갑자기 살던 집을 비워줘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사할 곳을 찾는데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이사 날짜가 서로 맞는 곳이 없어 고민하던 중 이곳 횡성에는 한 번도 와 본 적도 없는데 주위에서 추천해주셔서 바로 집이 계약되고, 5일 만에 예배드리기 좋고 기도하기 좋은 교회가 있는 횡성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 횡성교회는 이름도 모르고 열굴도 모르는 타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께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헌금을 하였고, 원주교회의 김찬수 목사님과 특공대 목사님들, 그리고 원주교회의 전도사님들과 성도님들의 헌신과 땀, 눈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횡성교회의 권사님께서 작년 여름에 십자가 세워지기 전날 한 꿈을 꾸셨답니다. 키가 크신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아버지가 오신다며 너무 좋아하셨는데, 뒤에 20m나 되는 여자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여종을 보내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벌써 1년 전 미리 모든 걸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아이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임대료를 1년 동안 드린 것 외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큰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꾸미지도 수고도 하지 않은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이곳에 전도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형편이 좋아지면 이렇게 주의 일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때가 되면 시간만 낭비한 것을 알지 않을까요? 작으면 작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시작하다 보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신6:10-11). 이 말씀이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전도사인 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도님이 안 계십니다. 전도로 채워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궁리를 하던 중, 어떤 분과 전화 통화 중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나가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분께서 전단지 만드는 비용을 부담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선뜻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성도님들의 작은 관심과 기도가 많은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님들께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아시나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힘내서 목사님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세요. 저도 동참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하러 나가십시오. 횡성예수중심교회 박매숙 전도사

## 사람이 병드는 이유

사람이 화를 내면 자율신경이 깨진다. 극도로 화를 내면 피가 거꾸로 돈다는 말처럼 온갖 질병이 생긴다. 극도로 화가 나면 손이나 몸이 벌벌 떨리고 심하면 쓰러지기도 한다. 이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긴장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이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구가 파괴되어 혈액이 걸쭉해진다. 화를 낼수록 혈액이 오염되고 온갖 질병이 생긴다. 말초 혈관의 혈류가 나빠지고 원활하지 않으면 실신하기도 한다. 분노가 몸에 미치는 악영향은 호르몬 조절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 에피네프린 등 호르몬이 분비된다. 도파민, 에피네프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필요할 때 분비되지 않는다. 호르몬의 조절기능 저하로 도파민 분비가 부족해 파킨슨병이 생긴다.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 자기 수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잠15:13).",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잠17:22)." 심령의 근심으로 살 속에 뼈가 마르는데 어찌 병이 생기지 않겠는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잠18:14). 심령이 상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족을 못살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병에 짓눌려 일어나지 못한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불만을 표출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므로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이다.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하는데 무한경쟁시대를 살면서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욕심을 앞세우니 마음이 급하게 된다. 마음이 급하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을 부리므로 병이 생기고 병이 자신을 죽게 하는 것이다. 현실은 나로 만족하지 못하므로 내가 현실에 먹히지 말고 현실을 지배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케 하시고 마음과 육신을 강하게 하신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시103:5). 하나님을 의지해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며 독수리같이 땅을 박차고 창공을 나르게 하신다. 이승호 목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는 내 삶의 윤활유요  
항암제요 성장촉진제다  
감사는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린다  
-봉우

**2023 하계산상집회** 8월 14일(월)~17일(목), 8월 21일(월)~24일(목)  
장소: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